

외국인 관광객 환대서비스 품격 'UP'

전주시, 글로벌 수준 관광안내 체계 구축... 다국어 요금표·영문판 전주여행 책자와 지도 등 준비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한옥마을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고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할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이달 중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소와 외국인민박업소 박시설 310곳에 한국어와 영어, 중국

어, 일본어로 표기된 다국어 요금표를 제작·배부, 다국어 현판도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또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음식점소 100곳에는 다국어(한·영·중·일) 메뉴판을 제작·보급해 언어불편을 해소, 음식메뉴와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의 매력과 유용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문판 전주여행 책자와 지도를 제작해 주요 호텔과 문화시설, 관광안내소 등에 외국인관광객의 전주여

행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는 3월말까지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의 다국어 관광안내도와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해 관광지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태안광 안내관도 일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을 직접 대면하고 안내하는 관광 해설사와 통역안내원 등에 대한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잘 전달해 전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방문객에게

친절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는 3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 콜센터와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편의성을 높인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관광안내와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환대서비스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유효기간 2배로 늘어난다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전주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와 유효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오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해 동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시설, 체육시설, 생활 여가시설(전주동물원, 전주자연생태관, 경기전)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주시 고유의 자원봉사자 보상정책이다.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는 과거 자원봉사 시간 1시간 당 60포인트가 적립되던 것을 시간 당 120포인트로 상향,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홈페이지(www.jonjuvc.or.kr)를 통해 봉사자들이 자신의 포인트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1365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최근 3개월 동안의 자원봉사 실적 5회 이상이거나 10시간 이상일 경우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을 지참해 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황의욱 이사장은 "전주시의 자원봉사 등록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올해 들어 19만 여 자원봉사자를 넘어섰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전주의 자원봉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한우 생산능력 찾아내는 유전자 칩

박범영 농촌진흥청 축산생명환경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우의 유전성 질환과 육질, 사육량 등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한우 맞춤형 유전자 칩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주 노래방서 흥기난동 40대 남성 체포

여성 2명·경찰 6명 부상... 범인도 다쳐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민간인 여성 2명과 출동한 경찰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전 0시12분께 전주시 중앙동의 한 노래방에서 A(46)씨가 휘두른 흥기에 의해 일행

인 B(34)씨 등 2명이 다치고 출동한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와 B씨 등이 다루는 과정에서 A씨가 흥기를 꺼내자 다른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C경위

들이 흥기에 찔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난동을 부린 A씨도 몸싸움 도중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며 "A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삼민 기자

"수돗물 이용시 녹물 주의하세요"

전주 서부신시가지·서곡지구 26일까지

전주시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가 확인된 덕진경찰서 인근 팔복급수구역 상수도관을 복구한다.

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팔복급수구역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팔복급수구역 상수도관에서 연결되는 서곡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일부지역을 효자급수구역으로 임시 조정하는 작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급수구역이 조정되는 지역은 현대

아이파크, 호반베르디움, 우미관아파트, 문학초등학교 주변 주택지역 등 서부신시가지 유역로 북쪽 지역과 서곡지구 모든 지역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누수 복구공사로 인해 녹물이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녹물 발생 시 일정시간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지하 저수조를 사용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경우도 녹물 발생 여부를 확인한 수돗물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완산구 부정축산물·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전주시 완산구는 설 명절을 맞이해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정축산물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시·구 담당자, 축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축산물 가공업체, 식육포장 처리업체 축산물 판매소 등 관내

7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선물세트상품의 유통기한 위반 여부, 쇠고기 유통이력, 냉동식품을 냉장 포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임금 체불 선주 살해한 50대 붙잡혀

임금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선주를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53)씨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20분께 군산시 문율동의 한 골목에서 선주 B(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

고 있다.

A씨는 B씨의 배에서 5개월 가량 일하고 밀린 임금 700여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 중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임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1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주시의 한 원룸 2층에 침입해 잠을 자던 B(24)씨를 흉기로 위협해 미리 준비한 테이프와 케이크를 이용해 B씨를 속박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한 미리 장갑을 끼고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절도 강간과 특수강도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이불에서 피의자의 유전자 검출된 점 등을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중형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이 경과하지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